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료로 본 광주·전남 경제

# 장기화 된 광주·전남 소비 침체

## 소상공인 체감 BSI 광주 56.6·전남 51.2…전국 하위권
## 대형소매점 판매액·승용차 신규 등록 등 소비 지표 감소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물경제 주요 지표인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투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역 실물경제가 얼어붙는 등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실사지수(BSI)도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남 소상공인 체감 BSI는 5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는 56.6으로 10위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와 전남 모두 제조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광주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자부품(-18.2%)과 식료품(-7.0%), 자동차·트레일러(-3.0%) 등은 감소했지만, 기타기계·장비(+31.3%)와 전기장비(+24.2%) 등이 제조업 생산 성장을 견인했다.

소비는 모든 지표가 감소했다. 지난 5월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673대로 전년 동월보다 2.2% 적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2.7로 전년 동월에 비해 8.3% 감소했다. 대형마트 판매는 2.3% 늘었지만, 백화점 판매가 15.2%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지역민들이 값싼 생활 필수품은 꾸준히 구매했지만 사치재 소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도 1년전보다 각각 41.8%, 53.9% 감소했다. 주거용은 5% 늘었지만, 상업용(-78.6%), 공업용(-46.4%)이 큰 폭으로 줄었다.

수출도 전년보다 7.7% 줄었다. 자동차(-3.3%), 기계류(-8.4%), 전기장비·전자부품(-7.7%) 등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전남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했다. 금속가공(-15.8%) 등은 감소했지만, 기타운송장비(62.0%) 등의 증가폭이 더 컸다.

전남 역시 소비 지표는 모두 감소세가 뚜렷했다. 전남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7321대로 17.7%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3.6으로 4.6% 떨어졌다.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와 보합세를 보였지만, 건축허가면적은 71.1% 감소했다. 상업용(32.7%) 신규 착공은 증가했지만, 공업용(-30.4%)이 감소했다.

# 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나서야

## 'RE100' 활성화·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 등 청신호
## "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터 구축·인프라 개발 중요"

경기 침체의 위기 속에서 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재생에너지 수요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RE100' 활성화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분산에너지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 내 전기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E100 활성화가 전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지태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진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최열매 한은 광주전남본부 조사역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등의 문제를 겪는 전남지역에서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통해 가능해진 전기요금 차별화, 특히 RE100 산업단지 구축 및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분산에너지법 시행 후에는 높은 전력 수급 자립률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및 신규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의 전기요금이 21.5~64.0%까지 하락하면 지역내 총생산은 5.6~19.0% 증가하고, 지역물가는 2~6%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더해져 고용은 적게는 1만 9000명, 많으면 6만 500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22년 기준 전력 수급 자립률이 171.3%를 기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설비용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현재도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자립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철강·화학 등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의 생산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일수록 생산량과 자본, 노동 수요 등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이 높은 전남지역이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발맞춰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 유치 및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열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역은 "전남지역에 RE100활성화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인프라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역대 최장' 12회 연속

## 환율·가계대출 불안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묶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와 고환율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세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고 봤다.

금통위는 11일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7개월 동안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기준금리 동결 기간으로는 지난 2016~2017년에 17개월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이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보여, 당초 목표 수준이었던 2.0%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계대출 등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불확실한만큼 금리 인하 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도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오른 뒤 최근까지도 1380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

가계 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금리 인하 시기를 미룬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집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상공회의소, 경제자문위원회 출범

## 현장 규제·제도 개선 등 수행

광주상공회의는 지난 10일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경제자문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25대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와 법률, 조세, 중대 재해, 디지털 융합 등 11개 분야에 송기석 법무법인 감동으로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광주상의 현안사업 추진과 기업현장 규제·제도 개선, 회원서비스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 및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지금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대응, 군공항 이전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지역경제와 회원기업 성장 발전을 선도하고 광주와 미래 세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선운2지구 근린생활시설·주유소용지 공급

## LH 광주전남본부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용도별 토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로 면적 557㎡, 입찰 기준금액 14억원이다.

또 지구 남측 유일한 주유소용지는 1346㎡ 면적에, 입찰기준금액 33억원이다.

오는 18일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시작으로 19일 개찰을 진행한다. 공고문은 공고일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찰에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통합콜센터 및 LH 광주전남 판매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